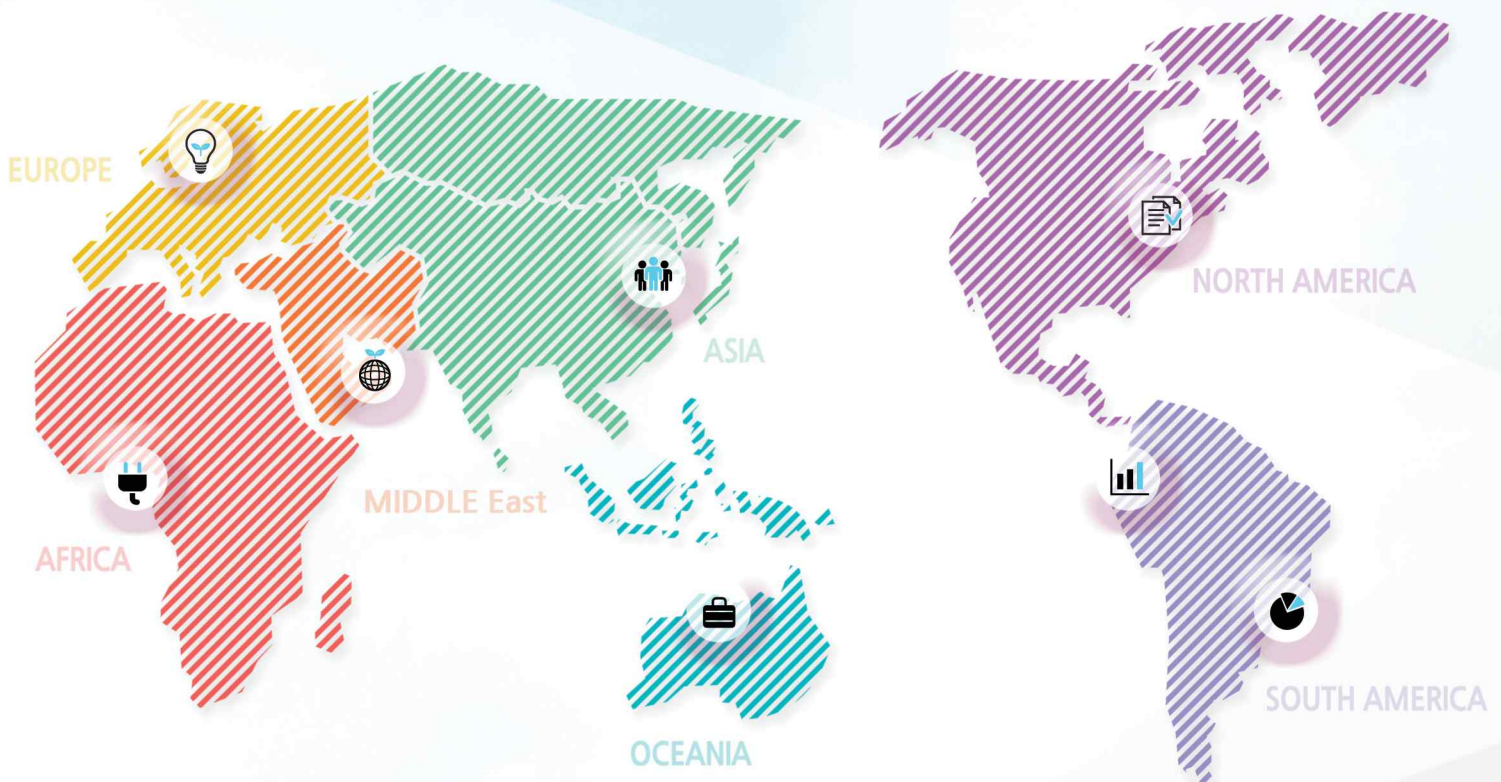




바이어와 현지진출기업을 통해 본 한-베트남 FTA 영향과 우리기업 진출방안

목 차

요 약

I. 한-베트남 교역 동향 및 FTA 주요내용 4

- | | |
|---|-------------------|
| 4 | 1. 한-베트남 교역 동향 |
| 6 | 2. 한-베트남 FTA 개요 |
| 9 | 3.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

II. 한-베트남 FTA 영향에 대한 베트남 바이어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반응 13

- | | |
|----|-----------------|
| 13 | 1. 조사개요 |
| 18 | 2. 베트남 바이어 반응 |
| 20 | 3. 현지진출 한국기업 반응 |

III. 시사점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25

참고 1.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27

참고 2. 베트남 수입시장 동향 28

요 약

□ 한-베 FTA('14.12월 타결)가 타결 1년만인 '15.12.20 발효

- 양국 기업들의 경제적 혜택 극대화, 투자·경제 협력 촉진을 위하여, 각국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12월 20일 발효 확정
 - * ('14.12.15) 실질적 타결, ('15.3.28) 가서명, ('15.5.5) 정식 서명, ('15.11.30) 국회 비준, ('15.12.9) '12월 20일 발효를 제안하는 외교공한 베트남측에 전달, ('15.12.16) 베트남측 외교공한 회신으로 '12월 20일 발효' 공식 확정, ('15.12.20) 한-베트남 FTA 발효
- 한-베 FTA의 연내발효로 발효일(12.20)과 내년 1월 1일, 관세가 단기간 내 두 차례 감축되어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수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

□ 현지 바이어, 한-베 FTA 발효 후 “한국과의 교역 확대될 것”

- 설문대상 베트남 바이어 177개사 중 89.7%가 한국産 수입 확대 또는 한국으로 거래선 전환검토 중
 - 중국, 대만,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하던 바이어 중 거래선을 한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68.1%, 54.5%, 48.4%로 높은 비중을 보임.

□ 현지진출 한국기업, “다양한 부문에서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 기대”

- 관세·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원자재 및 부품조달에 따른 경쟁력 향상,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이 한-베트남 FTA의 긍정적 효과라 응답
- 직수출, 현지생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진출 확대를 기대
 - 한국으로부터의 직수출, 현지생산, 한국 원부자재/부품 소싱 및 베트남 내수판매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 글로벌 경영전략 변화 움직임
 - 원자재/부품 조달선을 현지 조달선으로 변경하고, 투자 및 품목을 추가 확대하여 베트남 진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

□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베트남 내수시장 공략 지원

- 한-베 FTA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가전제품, 화장품 등) 위주 중소기업 마케팅 적극 지원 시 대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FTA 발효 전 가전제품(20~25%)과 화장품(10~20%)이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류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와 공격적인 마케팅 병행 시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

□ 현지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기업 M&A, R&D 협력 및 기술 교류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현지진출 한국기업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지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기업 인수 합병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45.3%로 높은 비중 차지
- 한-베 FTA 투자조항에 언급된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을 통한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안정적인 대베트남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 최근 베트남의 은행권 부실 정리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 우리기업 수요와 현지 추세를 종합했을 때 외국기업 M&A를 통한 투자진출 확대 가능

□ 현지진출 글로벌기업 공략

- 섬유·전자·통신 분야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생산거점을 두고 있지만 베트남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실정
- 한-베트남 FTA 발효로 관세 철폐/인하되는 부품들을 수출하거나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을 확대해 글로벌기업 납품을 확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소재국으로의 진출 가능성까지 검토해볼 수 있음.

I

한-베트남 교역 동향 및 FTA 주요내용

1. 한-베트남 교역 동향 및 주요 수출품목

□ 한-베트남 교역 현황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14년 잠시 주춤했던 수출이 '15년 경기침체 대비 고공행진 하여 '15년 10월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제1위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 *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15.10, 억 달러) : ① 베트남(233.9), ② 싱가포르(125.3), ③ 필리핀(70.8)
- '15년 10월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233.9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 수입액은 81.2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21.9% 증가)로, 152.7억 달러 흑자 기록

〈한-베트남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는 증감률,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0월)
총액	7,152	9,842	9,519	12,983	18,549	21,665	28,263	30,341	31,503
대베수출	5,760 (46.7)	7,805 (35.5)	7,149 (-8.4)	9,652 (35.0)	13,465 (39.5)	15,946 (18.4)	21,088 (32.2)	22,351 (6.0)	23,388 (27.8)
대베수입	1,392 (50.5)	2,037 (46.4)	2,370 (16.3)	3,331 (40.5)	5,084 (52.6)	5,719 (12.5)	7,175 (25.5)	7,990 (11.4)	8,116 (21.9)
무역수지	4,368	5,768	4,779	6,321	8,381	10,227	13,912	14,361	15,27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입 품목

- (대베수출) 무선통신기기, 판도체,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기구부품, 합성수지 등 5대 품목이 대베트남 수출의 약 39.0% 차지('15.10월 기준)
- (대베수입) 의류, 무선통신기기, 신발, 컴퓨터 목재류 등 5대 품목이 대베트남 수입의 약 50.9% 차지('15.10월 기준)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순위	수출('15.10월)			수입('15.10월)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무선통신기기	3,644	116.4	의류	1,927	1.0
2	반도체	2,376	△5.3	무선통신기기	1,151	341.6
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00	78.0	신발	445	4.4
4	기구부품	1,043	37.7	컴퓨터	316	159.3
5	합성수지	954	△3.1	목재류	286	3.5
	총계	23,388	27.8	총계	8,116	21.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베트남 투자 현황

- 한국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는 과거 봉제·섬유 등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 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
 - * '15년 9월 누적기준 4,700개 433억 달러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 진행, 투자 금액기준 북부 지역 51%, 남부지역 49% 투자 분포
- '13~15년 상반기 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대기업의 투자 확대 등 전년 대비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
 - 특히, '14년의 경우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은 각각 684건, 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91% 증가
 - '15년 3분기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투자건수는 38% 증가, 투자 금액은 61% 증가
 - * '15년 한국의 투자 중 증액투자는 37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65% 차지
- 분야별로는 누적기준 우리 기업의 제조업 분야(66.5%)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부동산개발(17.8%), 건설(6.0%), 물류운송(2.2%) 순

〈대베트남 국가별 투자 누적액 상위 8개국 최근 5년 투자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순위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	2015. 3분기
1	한국	1,466.6 (345 건)	1,178.0 (332 건)	4,293.5 (488 건)	7,327.5 (684 건)	5,745.4 (685 건)
2	일본	2,438.4 (285 건)	5,137.9 (378 건)	5,747.8 (416 건)	2,050.2 (436 건)	862.8 (318 건)
3	싱가포르	2,208.2 (137 건)	1,727.5 (138 건)	4,376.8 (139 건)	2,799.8 (147 건)	534.0 (113 건)
4	대만	565.6 (121 건)	453.0 (104 건)	595.5 (118 건)	1,178.0 (139 건)	972.8 (124 건)
5	버진 아일랜드	481.0 (38 건)	788.3 (42 건)	306.6 (25 건)	524.4 (49 건)	1130.3 (52 건)
6	홍콩	3,093.1 (68 건)	657.6 (59 건)	701.9 (76 건)	3,002.9 (122 건)	1,064.0 (99 건)
7	말레이시아	453.4 (32 건)	224.2 (44 건)	144.3 (28 건)	400.3 (46 건)	2,505.2 (26 건)
8	미국	253.9 (52 건)	125.2 (48 건)	125.5 (43 건)	259.8 (45 건)	155.9 (48 건)
FDI 투자총계		15,598 (1,191건)	16,348 (1,287건)	22,352 (1,530건)	20,230 (2,182건)	5,493 (1,038건)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 한국의 가파른 대베트남 투자 증가세와 달리, 기존 상위 투자국(일본, 싱가포르) 등은 '14년 한 해 동안 투자가 감소

* '13년 대비 '14년 투자증감(%) : 한국(70.6), 일본(△64.3), 싱가포르(△36.0)

2. 한-베트남 FTA 개요

□ 추진목적

- 베트남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시장 접근성 확대
 - 한-아세안 FTA를 통해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의 관세는 '10년까지 철폐 완료되었으나 베트남은 '13년부터 점진적 철폐
 - * 일부 품목의 한-ASEAN FTA 관세율은 MFN 보다 높은 관세 역전현상 발생
 - 한-아세안 FTA는 낮은 개방도와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 등의 원인으로 우리기업의 활용률이 38.5%에 머물고 있음.
 - *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평균 FTA 활용률은 66.9%

- 현지진출 우리 투자기업 보호, 동등한 기회확보 등 필요
 -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3위 투자유치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미
 -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베트남 전체 경제에 대한 기여도 막대
 - * 삼성전자가 현지 생산하는 휴대폰은 베트남 수출 1위 품목이며, 전체 수출의 18% 차지

□ 기대효과

- 동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함.
 -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기업 수출증가 효과,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생형 FTA가 될 것
- 한국의 제3위 수출대상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베트남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상품) 한-베 FTA를 통해 섬유·직물·자동차부품 등 우리기업의 중간재 수출 뿐만 아니라, 최근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됨.
- 특히, 한-베 FTA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월 1일, 단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되어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투자)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3위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한 한국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범을 통해 안정적 대베트남 투자 환경을 조성
- (서비스) 한-ASEAN FTA 대비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경제발전에 따라 건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베트남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

□ 한-베 FTA 협상일지

구분		주요 협상내용
1차	'12.9.3~4 (서울)	- 협상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채택
2차	'12.5.22~24 (베트남 하노이)	- 우리측의 Text(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등 13개 분야) 제시로 문안에 바탕을 둔 본격 협상 개시
※ VIP 방베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2013.9월)에서 “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3차	'13.10.16~18 (부산)	- 상품 분야의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에 돌입 - 별도 챕터 미합의 분야(지재권, SPS, 전자상거래, 경쟁)에 대한 전문가 대화 진행
4차	'14.3.12~14 (베트남 호치민)	-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 서비스 양허 방식 관련 절충점 논의 등 협상 진전을 위한 계기 마련
5차	'14.5.20~23 (서울)	- 상품 양허 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서비스 양허 관련 조건부 positive 방식에 공식적으로 합의
6차	'14.7.28~8.1 (베트남 호치민)	- 상품 양허 3차 오퍼를 교환하고, 서비스 분야 협상 개시
7차	'14.9.29~10.2 (서울)	- 상품 양허안을 바탕으로 관세 철폐 기간 등을 논의하고, 잔여 쟁점 합의 도출 노력 - 서비스 양허 관련 논의를 추가 진행하고,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SPS 분과의 경우 협상 가속화
※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2014.10월)시 “한-베 FTA 연내 타결”목표 재확인		
8차	'14.11.17~21 (베트남 다낭)	- 분과별 협상을 통해 협정문 관련 쟁점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한편,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수석대표 협의를 동시에 진행 - 원산지, 통관, 경쟁 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 도출
9차	'14.12.8~10 (서울)	- 상품 양허, 서비스·투자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실질 타결 선언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베 정상회담(2014.12월)에서 “한-베 FTA 실질타결 선언”		
'15.3.28	한-베트남 FTA 가서명(서울)	
'15.5.5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하노이)	
'15.6.4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15.11.30	한국 국회 비준 동의안 의결	
'15.12.20	한-베트남 FTA 발효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3.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17개 챕터를 다룬 포괄적 협정

○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

□ (상품)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2년도 수입액 기준 한국 94.7% (+3%p) - 베트남 92.2%(+6%p)로 자유화수준 합의

* 괄호 안은 한-아세안 FTA 자유화를 대비 증가분을 의미

〈한-아세안/한-베 FTA 시장자유화율 비교〉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베트남 시장자유화율	- 수입액 기준 86.2% - 품목수 기준 87%	- 수입액 기준 92.2% (7억4천만달러 규모 증가) - 품목수 기준 89.2% (상품 200개 추가)
한국 시장자유화율	- 수입액 기준 91.7% - 품목수 기준 91.3%	- 수입액 기준 94.7% (1억4천만달러 규모 증가) - 품목수 기준 95.4% (상품 495개 추가)

- 베트남측은 이미 대한 수입의 86.2%(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7%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철폐
- (3년) 면직물, 편직물 등, (5년)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 (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

〈한-베트남 FTA 품목별 관세철폐 내용〉

관세 철폐 시기	한국 시장 개방 품목	베트남 시장 개방 품목
즉시철폐	순면사, 블라우스, 코트 등 91개	화물자동차, 펌프 등 65개
3년내 철폐	석유제품, 자전거, 치즈 등 216개	순면직물, 원동기 등 16개
5년내 철폐	피조개, 성게, 두부 등 134개	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 등 47개
7년내 철폐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등 7개	가열난방기, 보온밥통 등 29개
10년내 철폐	열대과일, 섬유판 등 48개	화장품, 모니터, 냉장고 등 106개
15년내 철폐	천연꿀, 고구마전분 등 3개	자동차부품 등 3개

(농림수산물 시장개방)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

- * 쌀(협정대상 제외),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 유지, 마늘·생강 등은 10년 철폐
- * 새우는 국내 민감성 반영,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수입 (최대 15,000톤까지 무관세 대우)

□ (서비스) 포지티브 방식 채택,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 포함

- (건설)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 확보
 -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건설 서비스 관련 베트남 측 양허 개선 등
- (금융) 우리 금융업계의 현지진출 애로해소 위해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 간 별도 협의채널(금융서비스 위원회) 확보
- (통신) 우리 통신 사업자의 대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 이상의 규범 확보

□ (투자) 한-아세안 투자협정, 한베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베트남 측 경험 부족을 감안, FTA 발효 1년 후 완결토록 하는 Built-in 조항 도입
 - 향후 동 유보 협상 시점에서 베트남이 유보 목록을 작성한 협정 중 최고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원산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 우리기업 부담 완화

- (기계, 전자) 한-아세안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40%)으로 합의
- (자동차부품) 4단위 세번변경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의 편의 제고(예 : 기어박스, 차축 등)

□ (원산지절차/통관)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생산자 편의 도모

- (사전심사) 상대국 수출자·생산자도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원산지증명)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면제 및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

□ 무역구제

- (양자세이프 가드) 한-베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피해 방지
-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 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을 통해 총 덤핑 마진이 필요 이상 높게 계산 되는 것을 방지
 -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악용 가능성 예방
- (무역구제위원회) 한-베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논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 분쟁 가능성 방지 및 상호협의를 통한 해결 기회 제공

□ 무역기술장벽(TBT)

- 전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한국측 관심분야에서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강화,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 촉진 근거 마련
 -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TBT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례적인 TBT 현안 논의 채널 마련

□ (전자상거래) 베트남,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에 포함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전자인증·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종이 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

□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 마련

- (저작권) 한류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당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보장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
- * 이용자가 권리자의 사전허락 없이 콘텐츠를 복제할 경우에는 처벌 가능

- (상표권)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항 합의
 - 유명상표는 등록 전에도 보호하여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방지하고, 제품·포장의 형상도 상표로 보호

- (특허권) 특허공지예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발명이 사전에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된 출원의 구제 방안 마련

- (부정경쟁) 타인의 상표, 명성, 품질 등과 오인하게 하는 상업 활동 금지

- (집행)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등 규정

II

한-베트남 FTA 영향에 대한 베트남 바이어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반응

1. 조사개요

□ 추진 배경

- 한-베트남 FTA 발효와 관련, 현지 바이어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 및 전망에 대한 현장 반응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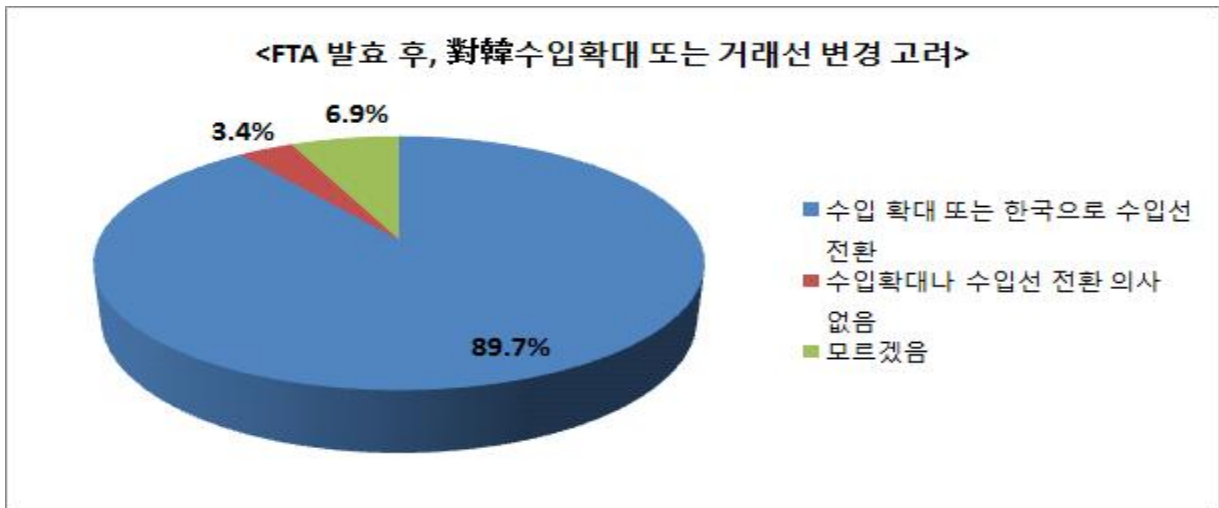
□ 설문조사 개요

- (조사자) KOTRA 하노이 무역관, 호치민 무역관
- (조사대상) 베트남 바이어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2,000여 개사
- (응답자)
 - 베트남 바이어 177개사
 - (업종별) 전기/전자 19.5%, 운송기기·기계 18.4%, 물류/유통 11.9%, 농업/낙농업 10.9%, 의약품/의료기기 8.0%, 화학제품 5.2%, 섬유/의류 4.6% 등
 - 현지진출 한국기업 81개사
 - (업종별) 섬유/의류 27.5%, 운송기기·기계 13.1%, 전기/전자 12.5%, 유통/물류 12.6%, 화학 8.8%, 서비스 6.3% 등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실시
- (조사기간) 2015년 12월 1일(화) ~ 12월 16일(수) 2주간
- (설문내용)
 - (바이어)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대한국 수입 확대 및 수입선 전환의사, 수입 확대 예상 규모, 거래선 변경 검토 주요 이유 등
 - (진출기업) 한-베트남 FTA 발효의 종합적 영향, 베트남 진출 확대 여부, 현지사업 운영방향의 변화, 베트남 시장진출 가능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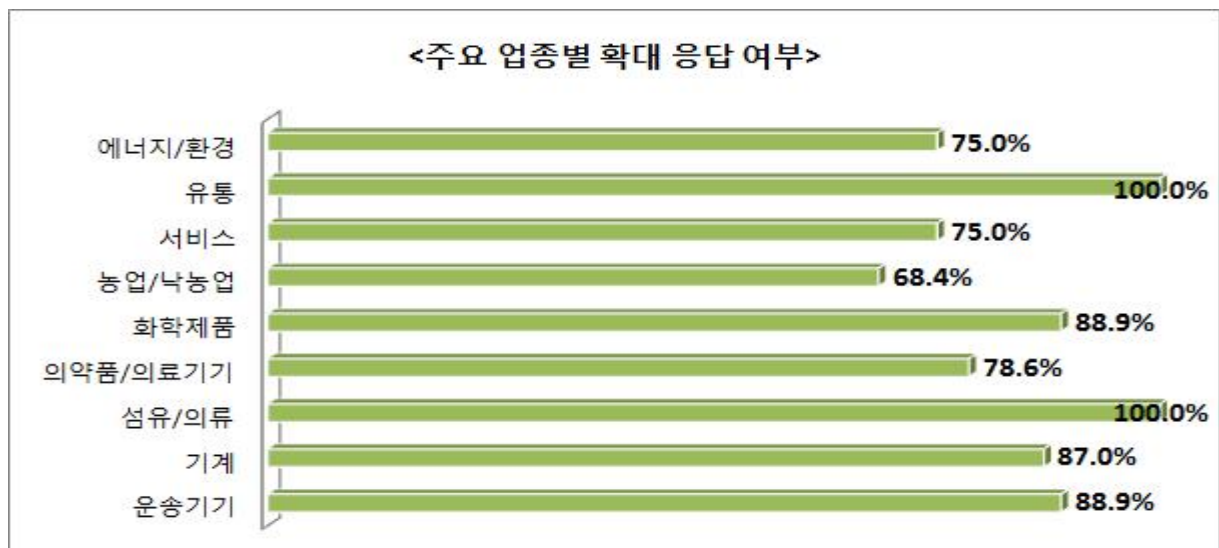
2. 베트남 바이어 반응

□ (전반적 효과) 한-베 FTA 발효로 우리의 대베 수출, 직접적인 수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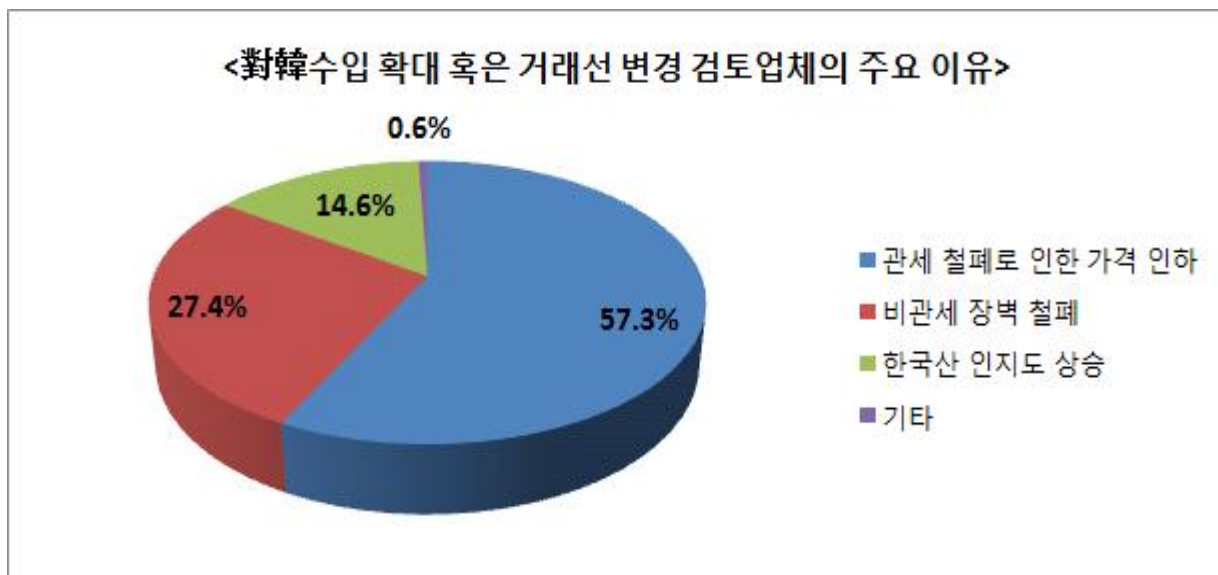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거나 한국으로 거래선을 전환한다고 응답한 바이어 비중은 전체의 89.7%로 큰 비중을 차지



- 업종(산업)별로는 대다수 분야에서 수입을 확대하거나 거래선 전환을 고려중인 바이어 비중이 높아, 이들 업종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섬유/의류(100%), 유통(100%), 운송기기(88.9%), 화학제품(88.9%), 기계(87.0%), 의약품/의료기기(78.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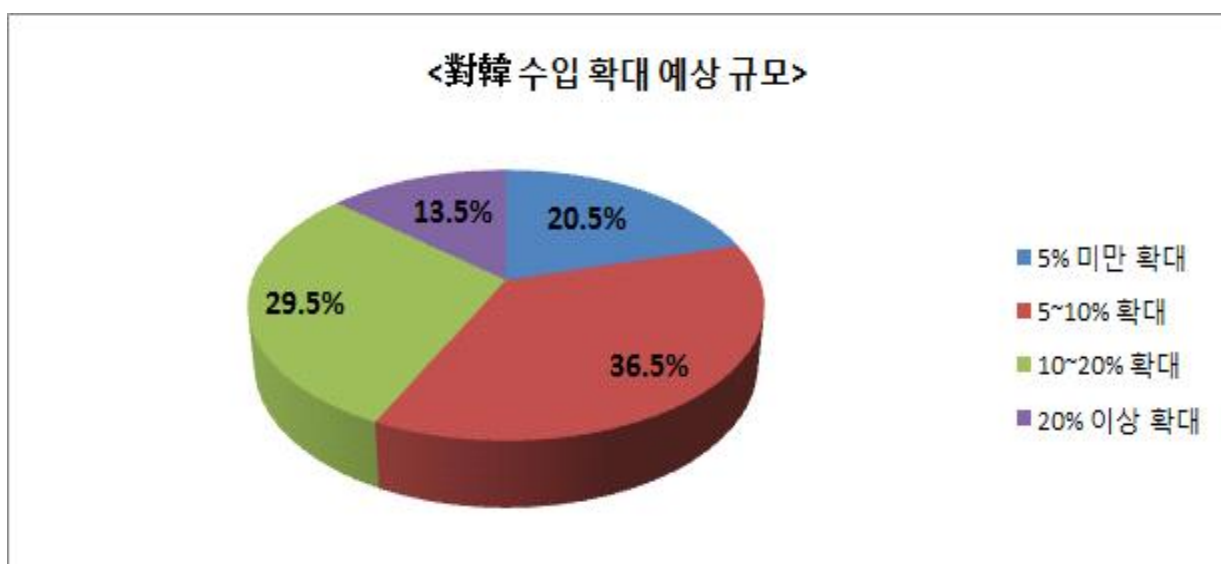


-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거나 거래선 전환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 인하(57.3%), 비관세 장벽 철폐(27.4%)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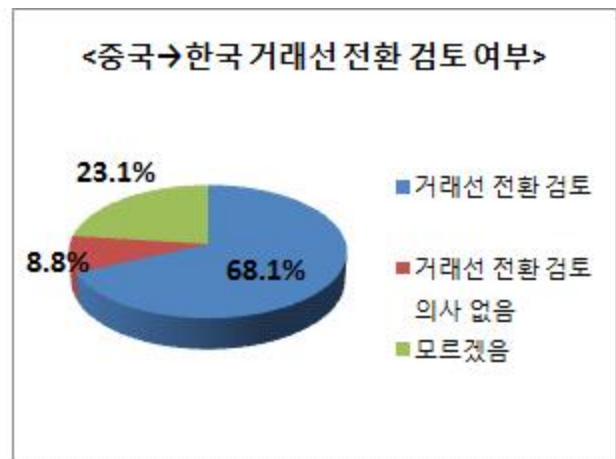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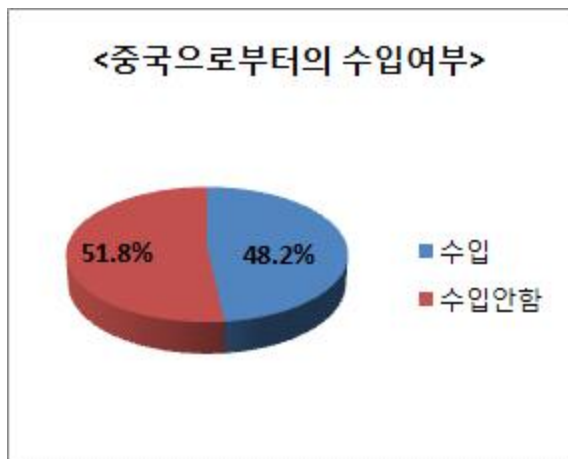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 폭)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이어의 36.5%가 5~10% 가량 확대할 것이라 응답

- 10~20%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도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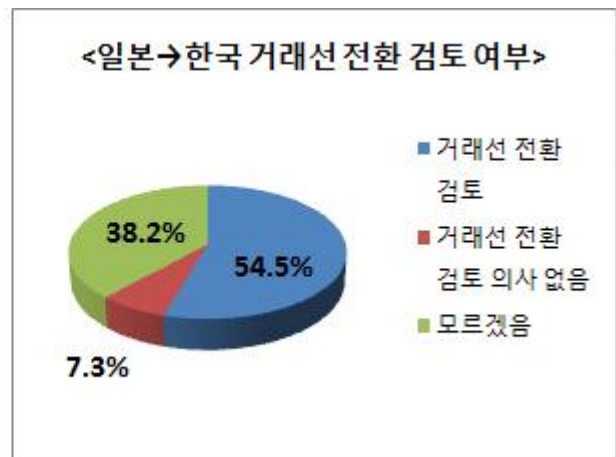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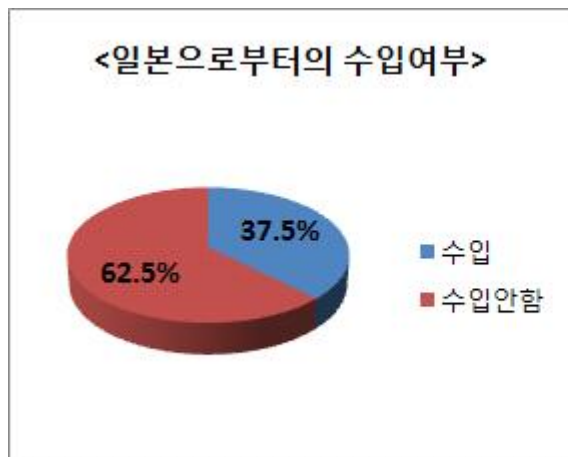


□ (한국으로의 거래선 전환 효과) 베트남 주요 수입국인 중국, 일본, 대만에서 물품 수입 중인 바이어 대다수가 한국으로의 거래선 전환을 검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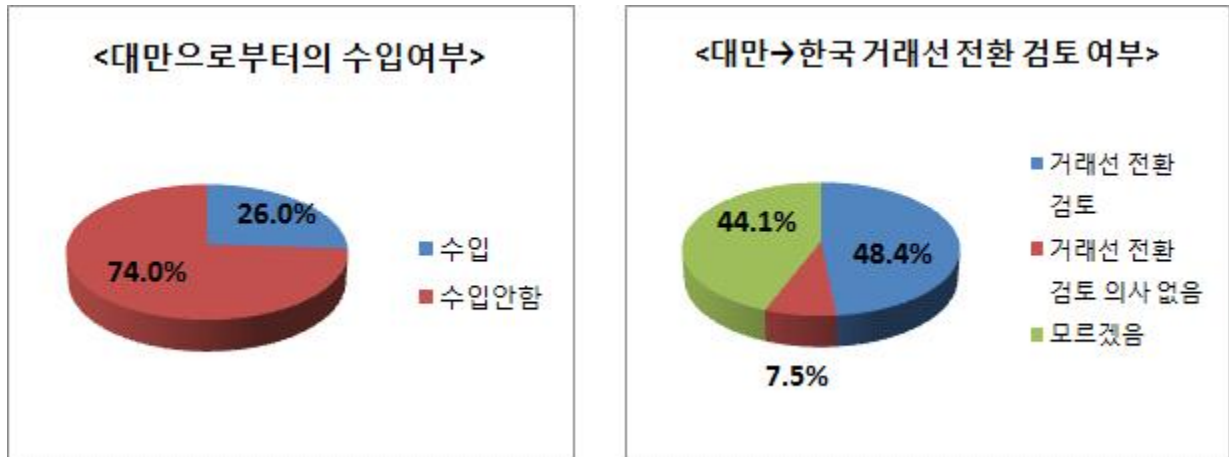
- 전체 응답 바이어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바이어는 48.2%이며, 그 중 68.1%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거래선 전환을 검토한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 바이어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바이어는 37.5%이며, 그 중 54.5%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거래선 전환을 검토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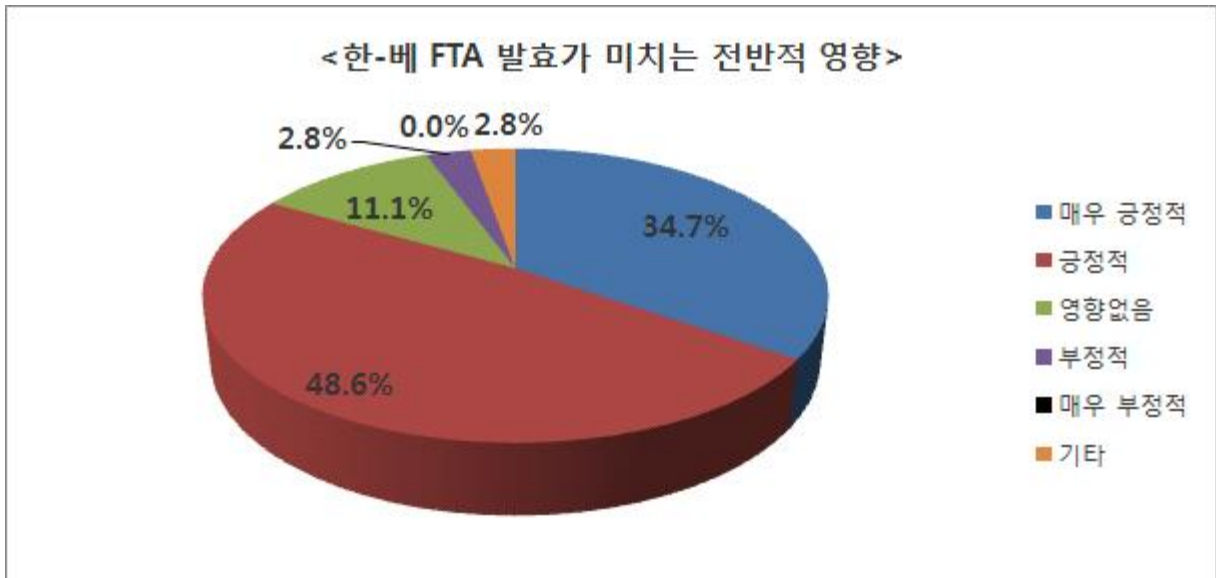
- 전체 응답 바이어 중 대만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바이어는 26.0%이며, 그 중 48.4%가 대만에서 한국으로 거래선 전환을 검토한다고 응답



- 각 국가로 수출을 진행중인 바이어 중 일부는 거래선 전환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이들을 타겟으로 한 집중 마케팅 필요
 - 거래선 전환 관련 입장 미정 업체 비중 : 중국(23.1%), 일본(38.2%), 대만(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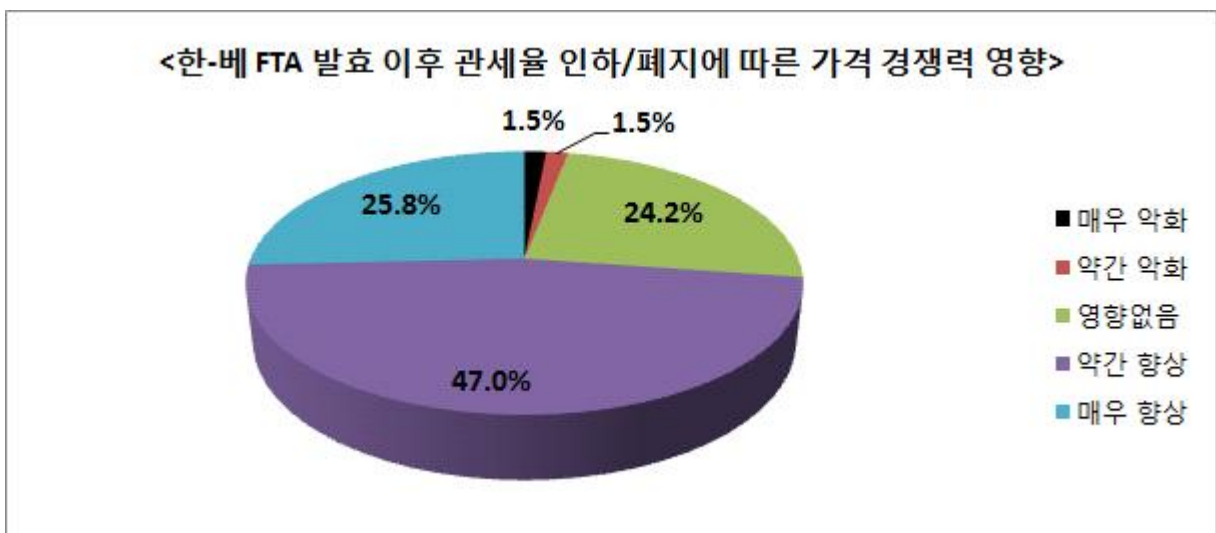
3. 현지진출 한국기업 반응

- (전반적 효과) 한-베 FTA 효과에 대해 응답 진출 기업의 83.3%가 낙관적 - 매우 긍정적(34.7%), 긍정적(48.6%)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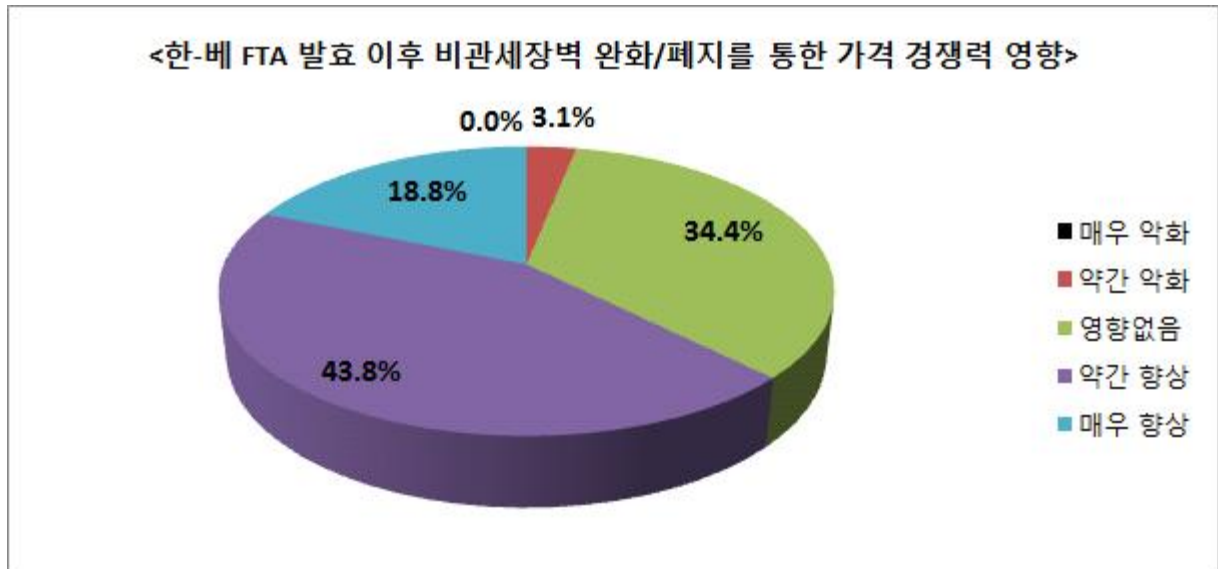


- (낙관 사유) 베트남 시장 내 관세율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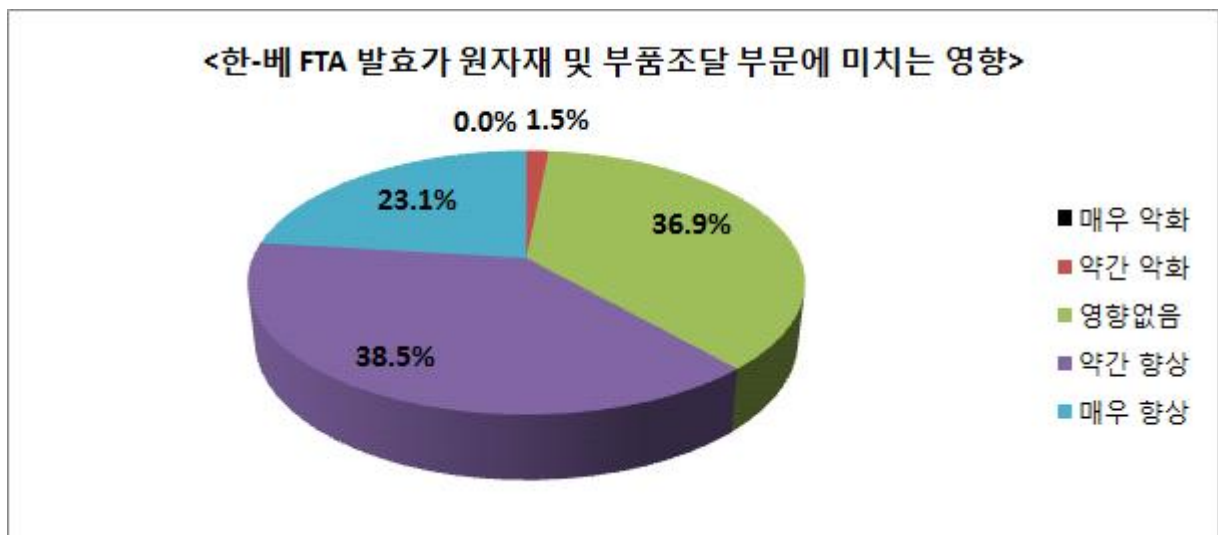
- 관세율 인하/폐지 향상에 따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 72.7%



- 비관세장벽 완화/폐지에 따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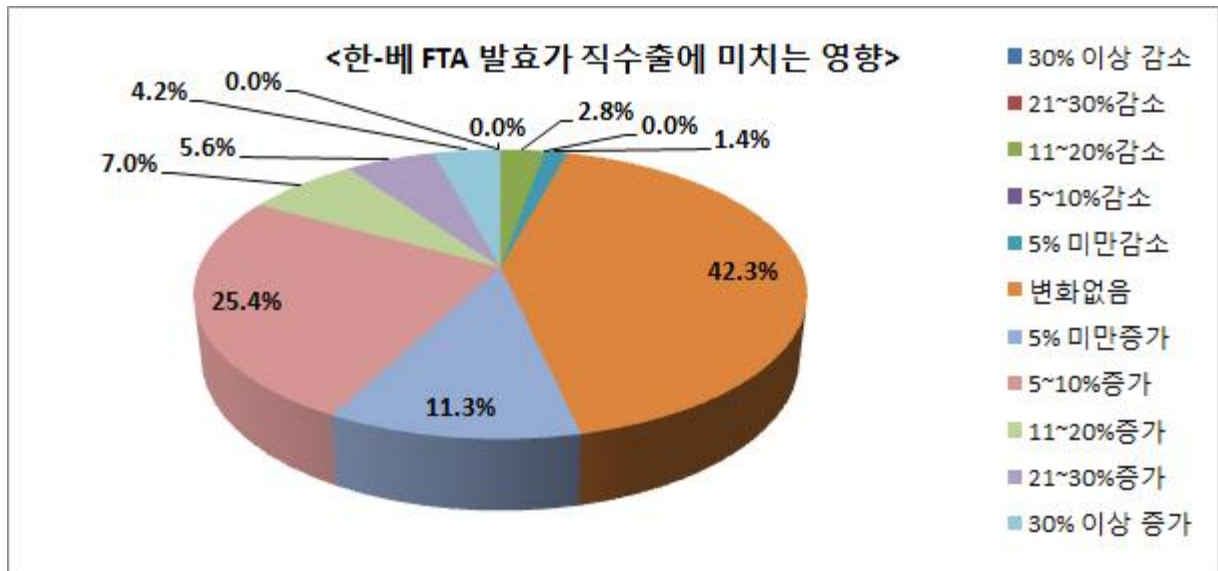
- 원자재 및 부품조달에 따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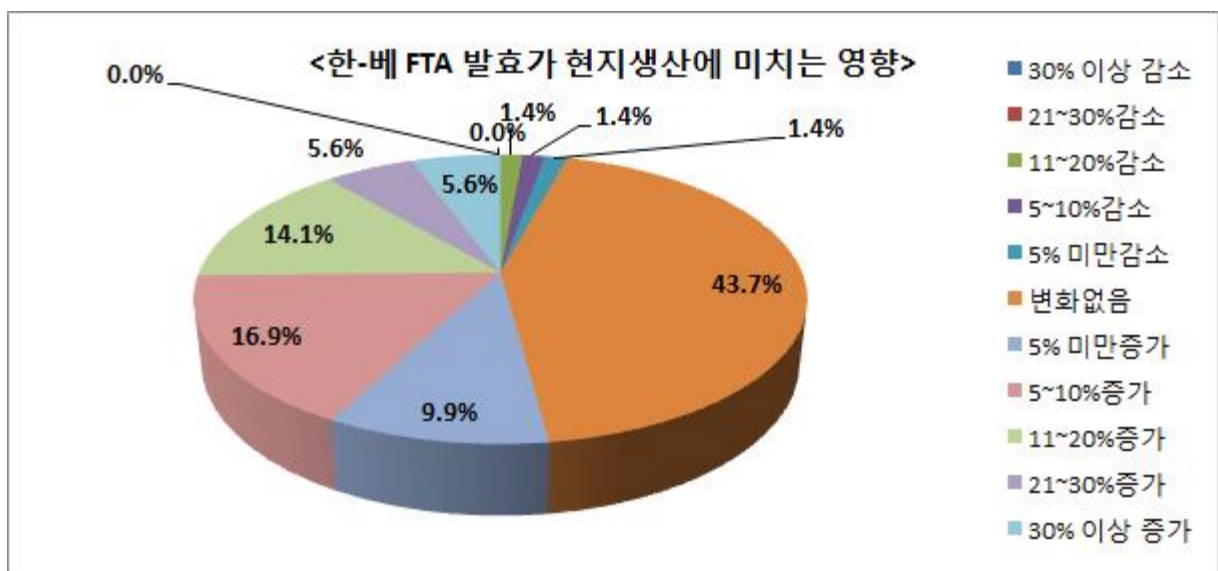
- 그 외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49.2%), 품질 경쟁력(46.9%), 현지 관련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협력관계(43.5%)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

□ (직수출 및 현지생산) 직수출 및 현지생산이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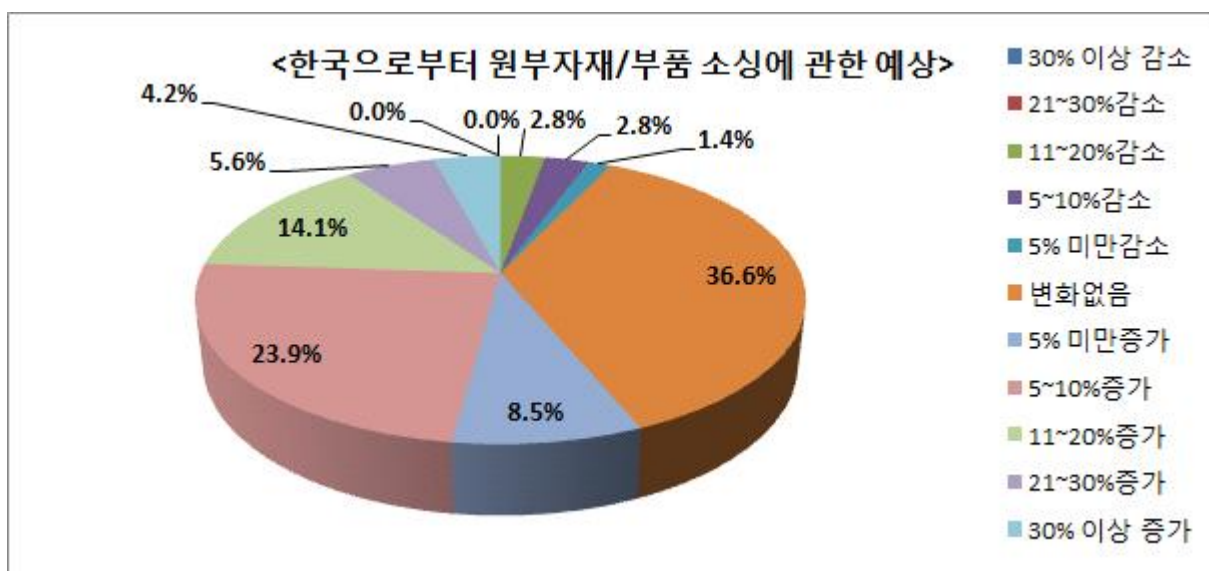
- 한국으로부터의 직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3.5%에 달한 반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2.3%



- 응답업체의 52.1%가 베트남 내 현지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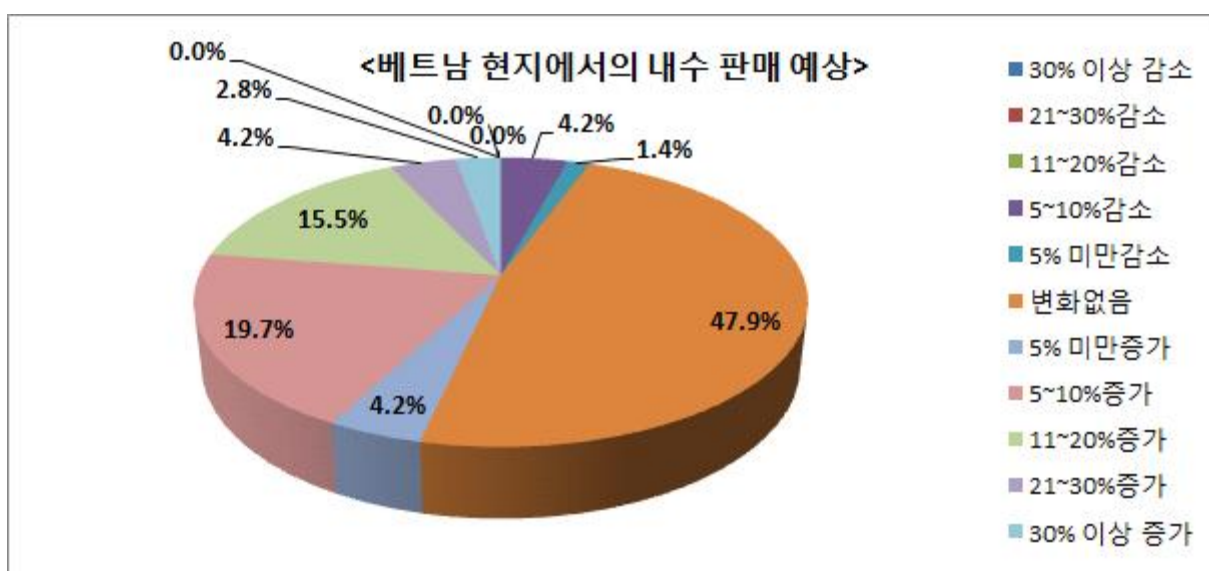


- (한국 원부자재/부품 소싱)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부품 소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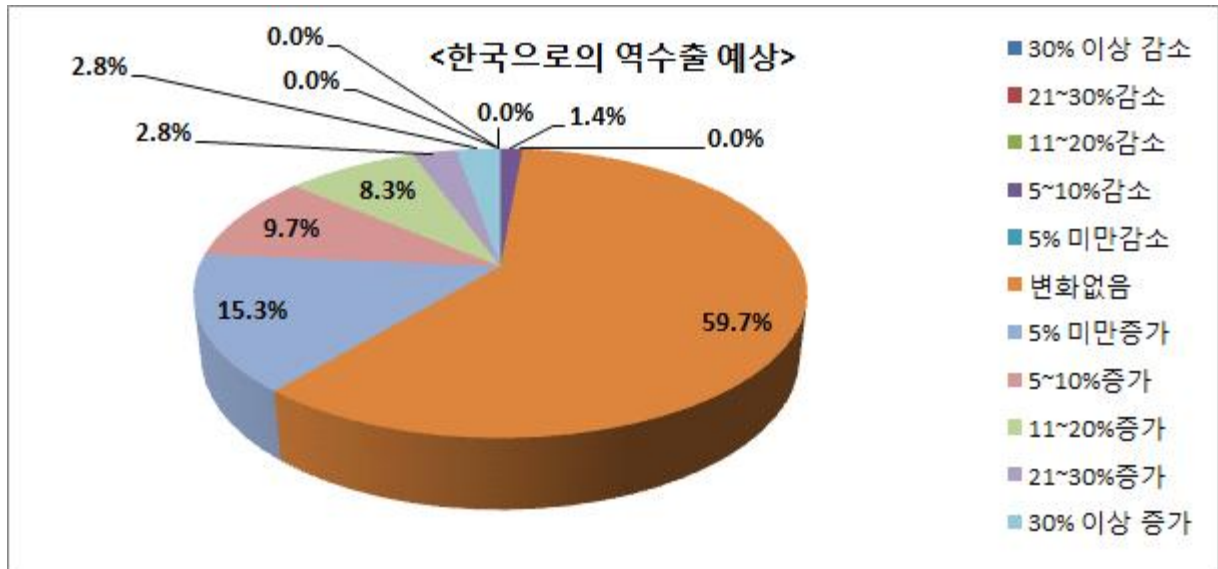


- (베트남 내수 판매 및 대한역수출) 내수 판매 및 대한 역수출과 관련하여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이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내수판매 및 역수출에 대해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내수 판매) 베트남 내수 판매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7.9%에 달했으나, 내수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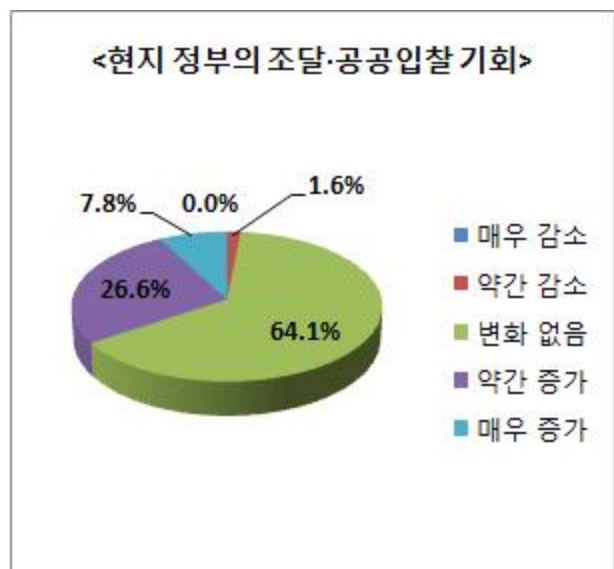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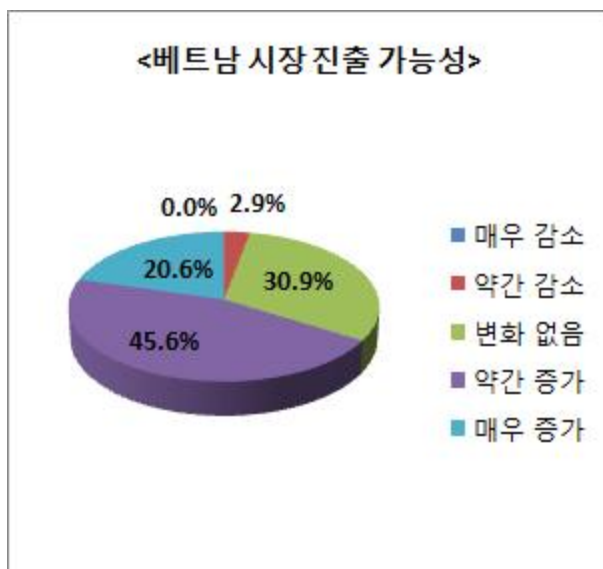


- (대한 역수출) 한국으로의 역수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9.7%로 비중이 높았으나, 역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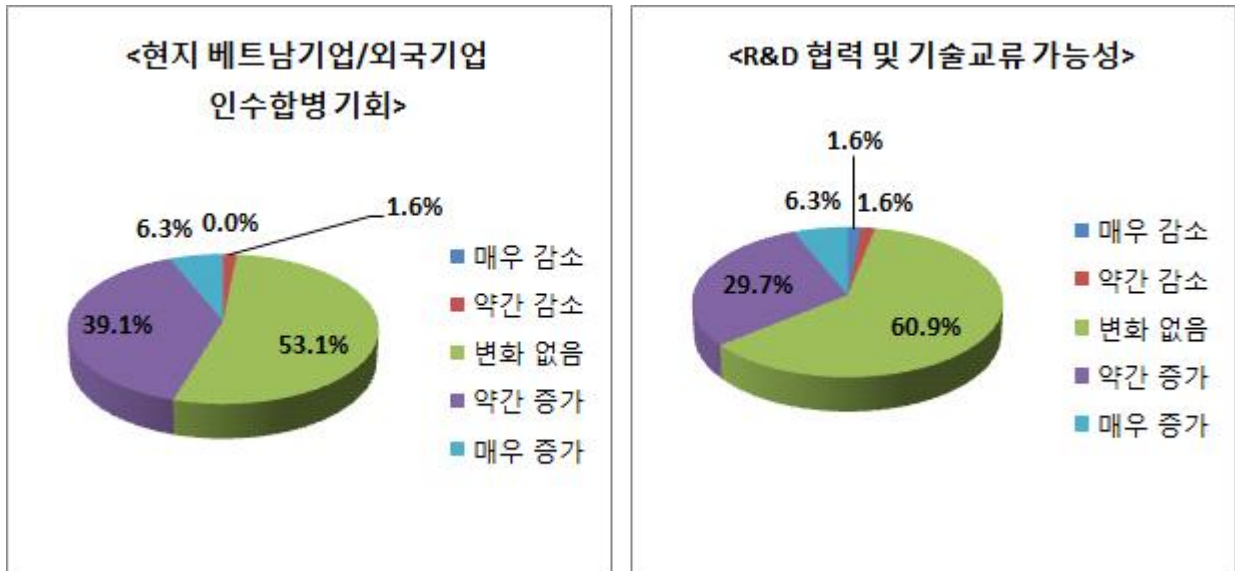


- (베트남 현지에서 예상되는 변화)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며, 베트남 기업과의 합병 기회 등에 대해서도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66.2%, 현지 정부의 조달 및 공공입찰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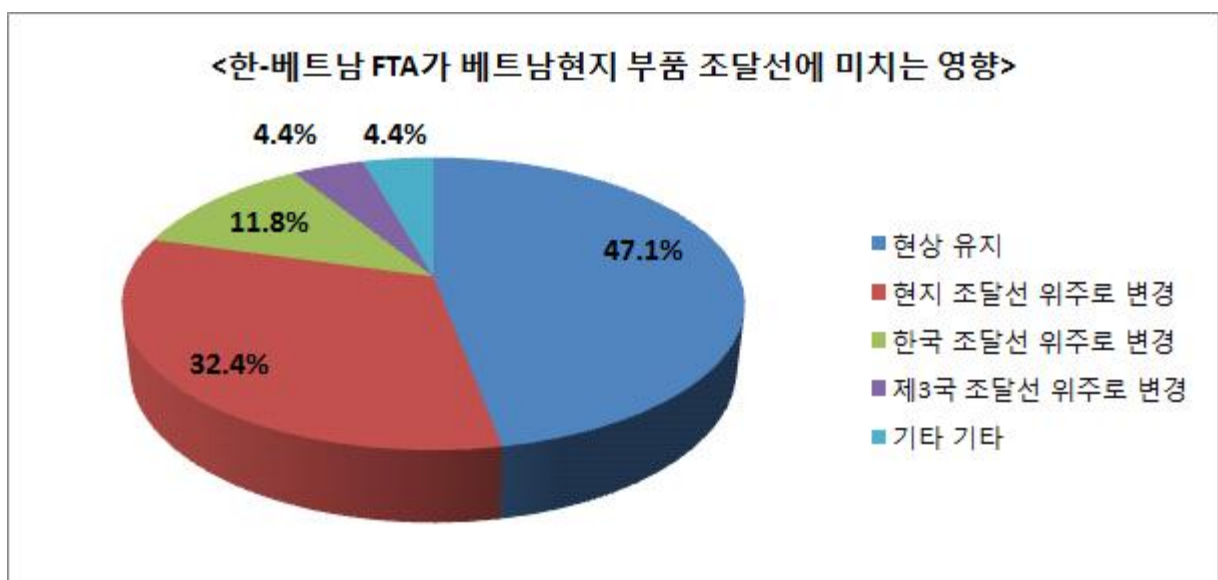


- 현지에서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기업 인수 합병 기회 및 R&D 협력 및 기술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45.3%, 35.9%로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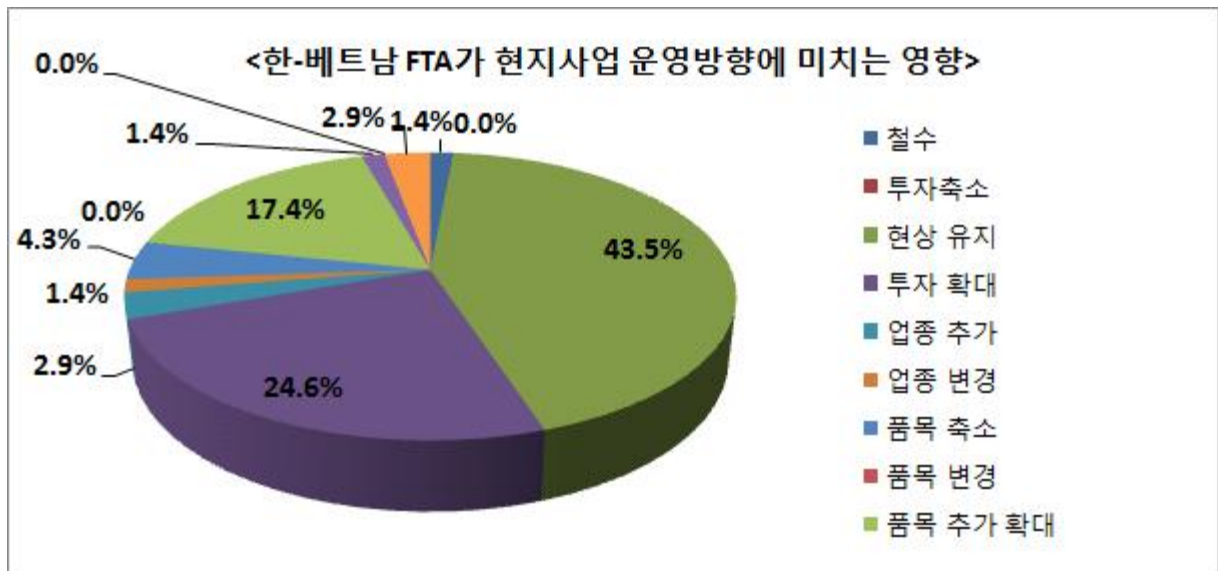


□ 글로벌 경영 전략 변화

- (현지 원자재/부품 조달선)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 47.1%, 현지 조달선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응답이 32.4%였으며, 한국 조달선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



- (현지 사업 운영 방향 변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투자 확대 24.6%, 품목 추가 확대 17.4% 순으로 집계



III

시사점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베트남 내수시장 공략 지원

- 한-베 FTA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가전제품, 화장품 등) 위주 중소기업 마케팅 적극 지원 시 대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FTA 발효 전 가전제품(20~25%)과 화장품(10~20%)이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류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와 공격적인 마케팅 병행 시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
- ⇒ (온라인) 베트남 대표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오프라인) 각종 상품전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중기제품 수출 지원
- ⇒ 한류스타 이미지를 활용한 백화점 내 한국상품 전시회 개최, 인기 한류 드라마에서 중소기업 제품 PPL 등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 현지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기업 M&A, R&D 협력 및 기술교류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현지진출 한국기업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지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기업 인수 합병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45.3%로 높은 비중 차지
 - 한-베 FTA 투자조항에 언급된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을 통한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안정적인 대베트남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 최근 베트남의 은행권 부실 정리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 우리기업 수요와 현지 추세를 종합했을 때 외국기업 M&A를 통한 투자진출 확대 가능
- ⇒ KOTRA 무역관에서는 M&A 목표매물 발굴 및 보고서 작성, 한국 투자자 평가를 거친 후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M&A 시장기회 활용 지원 예정

□ 소재/부품 조달선 다변화 및 제3국 우회수출 확대

- 기 체결된 베트남의 FTA 및 올해 협상이 타결된 EU-베트남 FTA, TPP를 활용한 소재/부품 조달선 다변화 및 제3국 우회수출 확대 필요
 - TPP가 발효될 경우 역내 관세 철폐 혜택을 활용하여 생산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등 TPP 생산기지 이전할 경우 가격 경쟁력 향상 기대
 - 한-베 FTA와 베트남 체결 양자·다자 FTA의 상품양허를 비교하여 (한국→베트남→제3국) 수출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제3국 우회수출 확대
- ⇒ 한-베 FTA뿐만 아니라 베트남 체결 양자·다자 FTA(EU-베 FTA, TPP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산업별 연구, 관련 세미나 개최

□ 현지진출 글로벌기업 공략

- 섬유·전자·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생산 거점을 두고 있지만 베트남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실정
 - 한-베트남 FTA 발효로 관세 철폐/인하되는 부품들을 수출하거나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을 확대해 글로벌기업 납품을 확대해 글로벌기업들의 본사 소재국으로의 진출 가능성까지 검토해볼 수 있음.
- ⇒ 주요 글로벌기업 및 베트남 부품소재 제조사 초청을 통한 기술이전 및 아웃소싱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참고 1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구분	FTA	서명시기	비고
체결 완료	ATIGA ASEAN 상품무역협정	2010	-
	AIFTA 인도-ASEAN FTA	2003	-
	AAANFTA 호주/뉴질랜드-ASEAN FTA	2009	-
	AKFTA 한국-ASEAN FTA	2006	-
	AJCEP 일본-ASEAN FTA	2008	-
	ACFTA 중국-ASEAN FTA	2002	-
	VJEPA 일본-베트남 FTA	2008	-
	VCFTA 칠레-베트남 FTA	2011	-
	VLFTA 라오스-베트남 FTA	1998	2015.3.3. 개정협정 서명
	VKFTA 한국-베트남 FTA	2015	-
	VA-EAEU FTA 유라시아 경제연합-베트남 FTA	2015	-
협상 타결	EVFTA 유럽-베트남 FTA	-	2015.8.4. 타결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2015.10.5. 타결
협상 중	홍콩-ASEAN FTA	-	-
	VEFTA FTA 유럽자유무역연합-베트남 FTA	-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
협상 검토	캐나다-ASEAN FTA	-	-

자료원 : 베트남 WTO Center-VCCI, 베트남 산업무역부

참고 2 베트남 수입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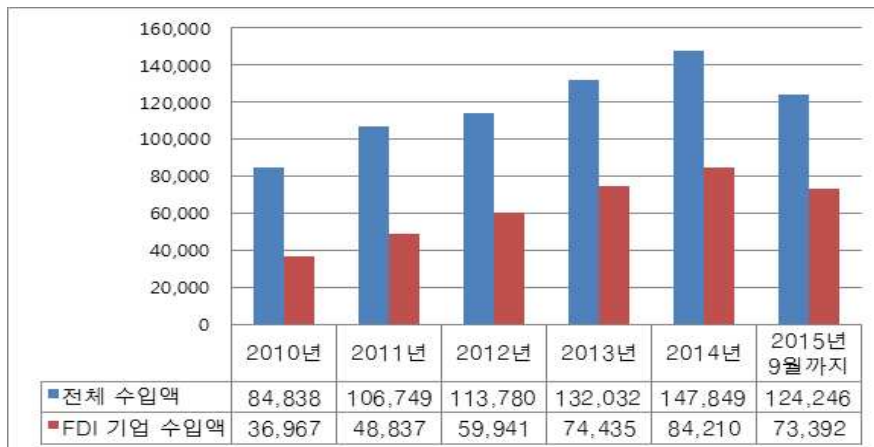
1. 한-베트남 교역 동향 및 주요 수출품목

□ 최근 베트남 수입동향

- '10년~'14년 간 베트남 수입액은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특히 외투기업이 베트남 수입 증가에 크게 기여
 - 베트남 수입액은 '10년 840억 달러에서 '14년 1,470억 달러로 75% 증가
 - '14년 외투기업의 수입액은 84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입의 57% 차지
 - 전체 수입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43%에서 '15년 1~9월 59%로 증가, 베트남 수입 수요는 외투기업에 크게 기반하고 있음.

〈베트남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 '14년 베트남에서 수입한 품목들은 대개 섬유, 플라스틱, 섬유 및 제화 원자재 등 베트남 내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들임.
 - 이 중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군은 기계, 장비, 도구 및 기구로 전체 수입의 15%를 차지
 - 베트남 내 기계 산업이 아직 미약하여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

〈'14년 베트남 수입 상위 10개 품목군〉

연번	품목군	수입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14년 전체 수입액 중 비중(%)
1	기계, 장비, 도구 및 기구	22,424	20.0	15.2
2	컴퓨터, 전자제품, 그 부품 및 요소	18,746	5.8	12.7
3	섬유	9,423	13.0	6.4
4	전화기, 휴대전화 및 부품	8,490	5.5	5.7
5	철 및 강철	7,719	16.0	5.2
6	석유제품	7,531	8.0	5.1
7	플라스틱	6,316	10.5	4.3
8	섬유, 가죽 및 제화, 원자재 및 부속품	4,689	24.1	3.2
9	기타 비금속	3,431	17.4	2.3
10	화학약품	3,318	9.4	2.2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 '14년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이 중 중국에서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국에서의 수입액은 43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입의 약 30%에 달함.

〈'14년 베트남의 10대 수입국〉

연번	국가	수입액 (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가율(%)	'14년 전체 수입액 중 비중(%)
1	중국	43,711	18.3	29.6
2	한국	21,763	5.1	14.7
3	일본	12,926	11.3	8.7
4	대만	11,079	17.6	7.5
5	태국	7,093	12.3	4.8
6	싱가포르	6,839	20.2	4.6
7	미국	6,297	20.3	4.2
8	말레이시아	4,207	2.6	2.8
9	인도	3,113	8.0	2.1
10	독일	2,620	△11.6	1.7

* 동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수입 1, 3, 4위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여부에 대한 설문 진행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작 성 자

◆ 아대양주팀

오 유 진



Global Market Report 15-054

바이어와 현지진출기업을 통해 본 한-베트남 FTA 영향과 우리기업 진출방안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6926-44-4 (95320)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